

闊葉樹林에 自生樹種아닌 잣나무 造林

속리산국립공원 法住寺-북천암 사이 태평휴게소 앞 빈터에 언제 심었는지 활엽수가 적합한 곳인데 속리산 자생수종이 아닌 잣나무를 조경식재했다. 활엽수림에 잣나무를 심었으니 키가 올라가면 활엽수목과의 樹冠線이 맞지 않을 뿐더러 活着여부도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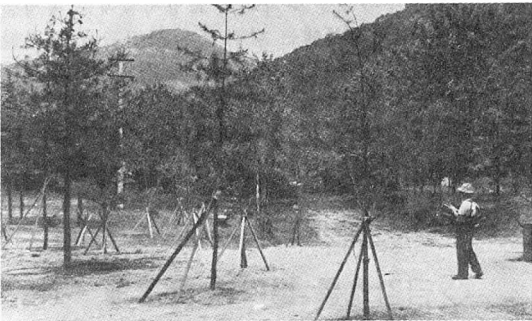


사진 : 조경식재한 잣나무

文藏台頂上까지 올라간 쓰레기

지난 5월 30일 속리산 문장대에 오른 L회원이 6월 10일 본회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문장대 정상 1,000m 지점까지 매점이 설치되어 컵라면, 캔類의 음식물을 팔고 있었는데 탐방객들은 이 음식물들을 표고 800m 지점에 와서 먹고는 쓰레기 집하장도 아닌 곳곳에 버려두고 가더라고 개탄. 그때 마침 모여고 학생 약 400명이 북천암에 집결했다가 지나간 후라 이 여학생들의 소행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체객들에 대한 사전교육대책도 아쉽고 고지대 음식물판매소에 대한 단속책도 긴요한 일.



사진 : 문장대 800m 지점에 버려진 쓰레기

國立公園에 번진 솔잎혹파리 피해

一本會, 건설, 내무부와 산림청에 통보-

본회는 지난 6월 5일 속리산국립공원중 말티고개 넘어 내속리면에서부터 범주사 인근까지의 소나무가 솔잎혹파리의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李景宰 회원(本회대의원·서울市立大 교수·농박)의 통보를

받아 곧 건설부, 내무부, 산림청에 피해 현장사진과 함께 이의 방제대책 수립을 통보.

이에 대해 산림청서는 동월 12일자로 본회와 충청남도 지사에게 이를 회신하였는데 동청임업시험장에서 이 지역의 피해상황을 정밀조사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천적방사 또는 수간주사 등 대책을 세운다고. 그런데 李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 지역의 솔잎혹파리 피해가 86년 11월까지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으나 87년 5월경부터 피해가 극심한데 이의 원인 규명이 간절하다는 것. 한편 鄭塚鎭 산림청장은 헬기로 유난히 극심해진 전국의 솔잎혹파리 피해상황을 직접 답사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 방제책에 기대.



사진 : 솔잎혹파리 피해로 고사한 소나무(上) 능선 일부 전체 소나무가 말라 붉은 산으로 변하고 있다.

긴급대피시설과 救助裝備 갖추자

폭우기인 지난 8월 중순경 덕유산국립공원을 탐방했다는 부산의 모산악회원이 월간 「山」 9월號 독자투고에 기고한바 그는 폭우를 만나 급류에 휩쓸려 계곡에서 교각을 잡고 40분 동안이나 고생한 사람을 보고 조난신고해도 오는 사람 없고 긴급대피시설도 없는데다 인명구조장비마저 관리소에 비치된 것이 없었다고.

조난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왜 급류에 뛰어들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12년동안 대피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구조장비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신설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앞으로는 이점에 대한 점검과 예산반영이 절실. [珠]